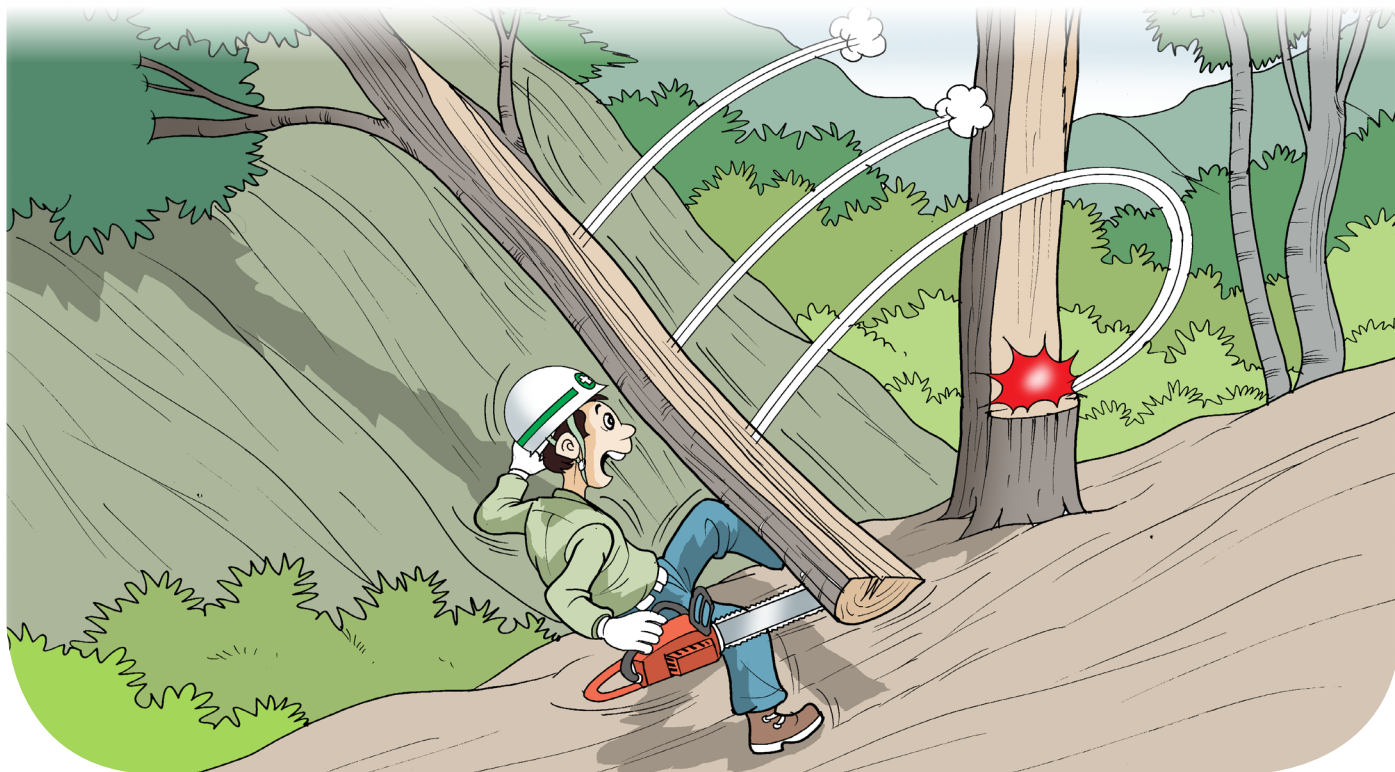


재해사례

(벌도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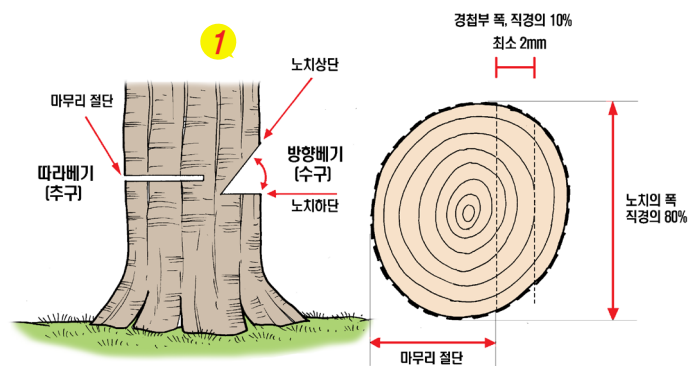
벌도목 절단 부분이 쪼개지며 떨어져
맞음조심조심
코리아
임업

벌목현장에서 기계톱으로 길이 약 30m인 참나무(벌도목)를 잘라내던 중 절단 부분이 갑자기 쪼개지면서 떨어진 벌도목에 맞음



! 재해발생 원인

- 벌도목을 의도한 방향으로 쓰러뜨리기 위한 적절한 추구(따라베기) 및 수구(방향베기) 작업 미흡
- 벌목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보 미흡
 - 약 15~20°의 경사지로, 적절한 대피로 및 대피장소 미확보



+ 안전작업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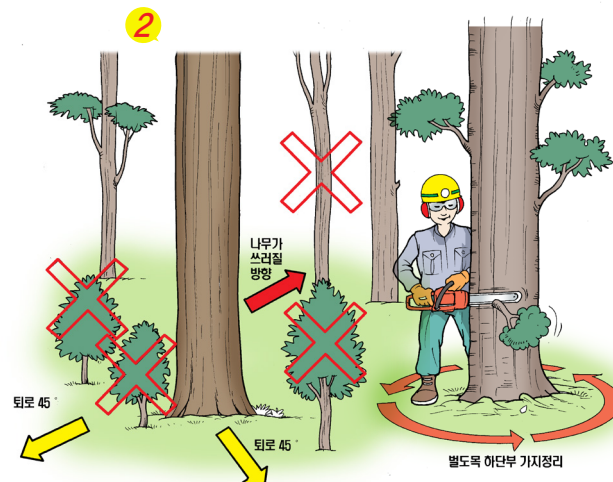
TIP

1 적절한 추구(따라베기) 및 수구(방향베기) 작업을 통한 안전작업 실시

- 절단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cm 이상일 경우 노치각을 30° 이상으로 만들기
- 추구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0분의 1 정도 높은 위치에 만들기

2 벌목작업시 적절한 대피장소 확보

- 벌도방향의 뒤편 양방향 약 45°로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정하고 뿌리·넙쿨과 같은 장애물 제거





벌도목 절단 부분이 쪼개지며 떨어져 맞음

벌목작업 전,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!

벌목현장에서 벌도목에
맞아 사망하는 재해는
자주 일어납니다.
어떤 재해가 일어나는지
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

안전모와 안전화
모두 착용했죠?

예~



오늘 벌목현장은 약 15~20°
경사지입니다. 작업자는
경사지 아래방향으로 벌도를
하고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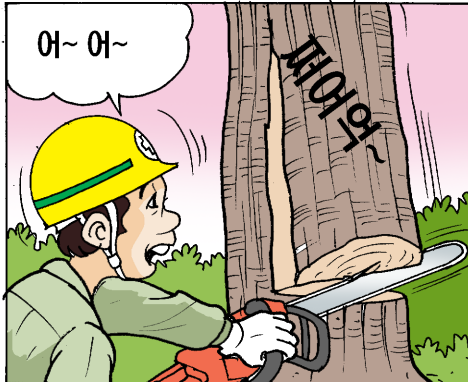
넘어지기 쉽게 각을 만들어야
하지만 시간이 없으니 그냥
하자...



오늘 왜 이래!
쉽게 되는게 없네 응!



어~ 어~



이렇게 갈라지면
나무가 못쓰게
되는데...



벌목 대상 나무를 베어내기
전에 작업자가 위험을 피할
수 있는 대피로 및 대피
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.
또한 의도한 방향으로
벌도목을 넣어뜨리기 위해
적절한 수구(방향베기)와
추구(따라베기)를 실시해야
합니다.



참고법령 및 기준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(벌목작업시 등의 위험 방지), 제406조(벌목의 신호 등)
- KOSHA Guide G-63-2011(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에 관한 기술지침)

